

= Thomas Mann의 <Doktor Faustus> 소설의 宗教성과 마귀의 存在 =

金 哲 子
(獨文科 教授)

(1)

Thomas Mann의 <Doktor Faustus>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Motive는 神學的인 要素와 藝術的인 것, 中世的인 要素와 人本主義的인 것, Nietzsche 傳記的인 要素와 마귀의 역할, 天才성과 질병의 관계, 獨逸人의 天性和 運命的인 要素……등등이라 하겠다.

이 같은 Motive들로써 Th. Mann의 <파우스트> 소설은 흔히들 Nietzsche 소설이라고도 칭해지면서 20世紀의 파우스트像을 主人公 Adrian Leverkühn의 모습에다가 그려볼려고 한 것이다. 이 파우스트 소설에는 主人公의 人物과 性品과 運命, 그리고 소설의 배경인 장소나 환경, 또 副人物들까지도 여러面에서 실제로 存在한 現實과 人物들에서 취한 것이다. 그러나 Th. Mann의 독자적인 그의 소설技法인 Montage-Technik로써 새롭고 독창적인 人物들을 창작하였다. 作曲家인 레버퀴인을 위해서 Th. Mann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 生涯의 年齡과 주된 모습을 따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는 그의 性格과 才能을 따오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가 한 말을 레버퀴인 입에 담게하기도 하고 또 옛날의 파우스트 박사의 時代를 연상케 하기 위한 어떤 中世的 지역의 環境을 배경으로 선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현대판 파우스트 박사가 되는 主人公은 주로 20世紀의 哲學家인 Friedrich Nietzsche의 모습과 獨逸中世時代의 화가인 Albrecht Dürer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Th. Mann은 <Züricher Student> 출판자에게 1948年 10月 30日字로 보낸 그의 편지에서 스스로 밝히기를 만약 그가 Adrian의 모습에다가 자기의 그 무엇을 넣어 주었다면, 그것이란 Komik에 대한 감각과 Parodie의 경향이라고 말했다고 Lindsay는 그의 저서에 인용하고 있다.¹⁾ 그런데 Leonhard Frank의 質問에 대한 대답 가운데 Th. Mann自身은 밝히기를 레버퀴인은 소위 말하는 한 理想的인 像이며, 우리時代의 영웅이며, 世紀의 苦痛을 겪어진 한 人間이라고 했다. 그리고 Th. Mann自身은 그의 作中人物들中에서 Hanno Buddenbrook를 제외하고는 레버퀴인 만큼 사랑한 人物은 없다는 것이다. 그의 代表作品들이라고 손꼽히는 것들의 主人公인 Thomass Buddenbrook나, <Zauberberg>의 Hans Castorp나 <Der Tod in

1) J.M. Lindsay: Thomas Mann. Oxford 1954 S.116

Venedig)의 Aschenbach나 <Joseph und seine Brüder>의 Joseph까지도 아니 <Lotte in Weimar>의 主人公인 Goethe까지도 레버퀴인에 대한 Th. Mann의 사랑에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Leverkühn sei sozusagen eine Idealgestalt, ein »Held unserer Zeit«, ein Mensch, der das Leid der Epoche trägt. Ich ging aber weiter und gestand ihm, daß ich nie eine Imagination, weder Thomas Buddenbrook, noch Hans Costorp, noch Aschenbach, noch Joseph, noch den Goethe von >Lotte in Weimar<— ausgenommen vielleicht Hanno Buddenbrook— geliebt hatte wie ihn.”²⁾

Th. Mann의 파우스트小説은 레버퀴인의 어린時節부터 그의 죽음에까지 동반한 친구이며 고등학교 교사인 人文主義者 Serenus Zeitblom이 小説의 作中話者로서 사랑하는 친구의 生涯를 서술한 형식의 소설이다.

짜이트브롬은 그의 친구의 절기를 집필함에 있어서 얼마나 그가 레버퀴인을 天才로서 사랑했으며 또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의 고독한 생애를 동반해주고 또 감탄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작곡생활을 도우고 격려하였나 하는 것이 소설의 처음부터 마지막 장면에까지 일괄해 있다. 그런데 Th.Mann은 레버퀴인에 대한 작한 짜이트브롬의 감정은 문자 그대로 바로 자기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짜이트브롬이 열려하는 마음에 가득차서 친구의 교만한 어린학교 시절부터 그에게 반해있었고, 친구의 차가운 성품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과 본능의 중간매개역활을하는 靈的인 要素가 결핍된 그것에도, 그의 非人間性에도 그리고 그는 저주받았음을 확신하는 그의 절망적인 심정에까지도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데, 이런 짜이트브롬의 감정이 바로 Th. Mann 自身の 것이라고 한다.

“Ich sprach die Wahrheit. Buchstäblich teilte ich die Empfindungen des guten Serenus für ihn, war sorgenvoll in ihn verliebt von seinen hochmütigen Schülertagen an, vernarrt in seine »Kälte«, seine Lebensferne, seinen Mangel an »Seele« dieser Vermittlungs—und Versöhnungs—instanz zwischen Geist und Trieb, in sein »Unmenschentum« und »verzweifelttes Herz«, seine Überzeugung, verdammt zu sein.”³⁾

이같은 天才性과 藝術性과 非人間性의 성품을 가진 레버퀴인의 비극적 운명은 비록 小説 속에서는 한번도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바로 Nietzsche의 그것으로 짜맞추어진 것이라고 Th. Mann은 밝혔다.

“Da ist die Verflechtung der Tragödie Leverkühns mit derjenigen Nietzsche's, dessen Name wohlweislich in dem ganzen Buch nicht erscheint,.....”⁴⁾

1943年 3月 15日에 시작하여 1947年 1月 29日에 마쳐진 3年 8個月의 긴 세월을 요했던 파

2) Thomas Mann: Die Entstehung des Doktor Faustus. S.65

3) ebda S.65F

4) ebda S.45.

우스트小説집필중에 Th. Mann은 참으로 육체를 질질 끌고 다니는듯한 많은 질병을 앓았다. 난생 처음으로 심한 폐병으로 절개수술까지 받았고 오랜 투병가운데서 이 소설이 쓰여졌다. Th. Mann이 쓴 파우스트小説의 生成記錄書에 보면 Th. Mann이 이 소설을 쓰기위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으며 또 누구와 만나서 무슨 對話를 나누었는가를 알 수 있다. Th. Mann이 그의 平生에 영향을 입은 사람이란 Nietzsche와 Wagner와 Schopenhauer임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중에서도 니-체에 대한 Th. Mann의 관심과 사랑과 지식은 특수하며 또 대단한 것이었다. 파우스트 박사小説을 위해서는 Th. Mann은 니-체의 《Ecce homo》를 읽었고 또 니-체의 서한집과 《Vom Nutzen und Nachteil der Historie》와 또 初期 70年代의 저서들을 읽었다. 심지어는 Th. Mann은 허파수술에서 겨우 책을 들 수 있게되자마자 다시 되풀이해서 《Ecce homo》를 읽었다.

小説속에서의 짜이트브롬과 레버퀴인의 關係는 거의 Thomas Mann의 Nietzsche에 대한 關係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여러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P. Pütz는 그의 論文 《Thomas Mann und Nietzsche》에서 Mann과 Nietzsche의 關係를 마치 기독교인들의 예수님과 성경과의 關係에다 비교하고 있다. 성도들이 성경말씀을 인용하고 생활의 규범과 진리로서 따르는 것 같이, Th. Mann은 모든 기회마다 합당한 Nietzsche의 발언을 가지고 지침과 변명으로 삼는것을 지적하였다. 1950年 봄에 Th. Mann은 스위스 방문시에 이전에 니이체가 체류한 곳인 Sils-Maria-Waldhaus를 방문했는데 또 1954年 8월에 다시금 이곳을 방문한것을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Nietzsche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통해서 그곳으로 가게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런 行爲도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聖地순례의 行爲와 비교하고 있다.⁵⁾ Th. Mann의 이와같은 行爲가 파우스트박사 소설속에서는 36章에 나오는 헝가리태생의 귀족부인인 Tola부인의 레버퀴인에 대한 關係로 표현되고 있다. 예술애호가요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은 부호인 토오라부인은 自己의 모습을 숨긴 채 뒤에서 레버퀴인의 作品이 공연되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비롯해서, 그의 작품들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인 비판에 反對로 긍정적인 호평과 찬사의 評을 쓰게하는데도 기여한다. 어머니요, 애인이요 수호여신같이 레버퀴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요구만 한다면 후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女 自身은 찬사와 존경을 다하여 그를 눈에 띄지 않게 돕는다. 그런데 그女가 남몰래 레버퀴인의 作品들이 공연되는 도시는 어디든지 나타나서 청중속에 섞여서 듣고, 또 레버퀴인이 태어난 고향과 대학시절에 머물렀던 고장들을, 그리고 그가 은둔생활을 하면서 정신이상이 될때까지 작곡생활을 한 바로 그집의 창앞에까지 남몰래 와서 보고, 그가 매일같이 산책하던 시골 풍경까지 빼어놓지 않고 다 돌아보는 그 열성을 짜이트브롬은 表現하기를 신기하게 感動시키는 것을 넘어서 聖地참배와 巡禮行脚에 대한 개념을 그에게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5) P. Pütz: Thomas Mann und Nietzsche. S.229.

“Dies ist packend genug, aber noch seltsamer ergreift es mich, und noch mehr ruft es die Vorstellung der Wall—und Pilgerfahrt wach....”⁶⁾

Th. Mann의 Nietzsche 숭배가 어느정도인가는, <우리들의 경험의 빛에 비친 니—체의 哲學>이라는 題目的 論文만 보아도 역역히 나타나 있다. 이곳에서 Mann은 Nietzsche와의 親和性을 일찍부터 느꼈는데 그의 젊은 청년의 마음은 그토록 새로운것, 파 뒤집는것, 심화하는것들로 지배받았는데 이것은 敬畏心과 연민이 뒤섞인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길이 없는 곳을 苦痛中에 뚫고 나가야했던 그 Nietzsche의 天才로서의 運命을 思思의 十字架에서 聖교의 죽음을 한 것이라고 했다.

“...was Nietzsche ins Unwegsame trieb, ihn unter Qualen dort hinaufgeißelte und ihn Martertod am Kreuz des Gedankens sterben ließ? Sein Schicksal—und sein Schicksal war sein Genie.”⁷⁾

小説속의 話者인 짜이트브롬은 레버퀴인의 말년의 수염을 기른 모습을 靈化한 受難者의 얼굴, 아니 바로 그리스도적인 얼굴의 모습이라고 表現하였다.

.....“dem Antlitz etwas Vergeistigt-Leidendes, ja Christushaftes verlieh.”⁸⁾

또 小説의 一章과 終章에서 짜이트브롬은 레버퀴인이 사랑과 긴장과 경악과 자랑가운데서 그의 生涯에 本質的인 내용을 부여하였노라고 告白하였고 또 사람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유효할 것인바 그가 시인함이란 그가 레버퀴인을 경악과 애정과 연민과 헌신적인 경탄으로써 사랑했다는 것이다. 이 告白은 곧 Th. Mann의 Nietzsche에 대한 사랑의 告白인 것이다. Th. Mann의 파우스트小説의 生成記錄에 여러항목에서 外部的인 要素들과 內部的인 要素들에서 소설의 主人公에게 Nietzsche의 그것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을 알 수가 있다. 55歲를 향유했고 8月 25일에 죽었고, 사망전 10年을 정신 이상이 되어서 어머니의 간호를 받았던것이 두 사람에게 꼭 같다. Nietzsche의 쾰른市의 娼家에서의 경험과 병을 앓아와서 완쾌되지 못한 치료경험은 文字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또 <Ecce Homo> 책에서 악마의 인용이라든가, 藝術과 藝術家의 生活의 문제성이라든가, 音樂의 役割, 너무 높은 업적을 향한 삶에 따르는 고독과 교만과 인간적 부족과 마멸이 가져오는 파괴적 운명도 두사람에게 같은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레버퀴인이 그대로 Nietzsche라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Th. Mann이 창작해낸 새로운 人物임에는 틀림없다.

파우스트小説의 기본적 줄거리는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경탄하며, 비록 국부적으로 다른 견해가 없지 않았지만, 그의 전체적인 예술관과 문화관, 인생관과 역사 및 종교관에 있어서 존경하다 못해 숭배하기까지 된 Nietzsche를 모델로한 한 音樂家 A. Leverkühn의 一代

6) Thomas Mann: Dr. Faustus. S.420.

7) Th. Mann: Neue Studien S.106.

8) Th. Mann: Dr. Faustus S.517.

記이다. 그러나 Th. Mann小説의 특징인 多意的이고 多層的인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이 소설속에는 獨逸人の 民族性和 히트러와의 결탁이 한가지 문제점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파우스트小説이 독일민족의 히트러와의 결탁의 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한 音樂家가 마귀와 계약을 맺는 一代記로 쓴것은 아니다. Th. Mann 自身도 밝히기를 詩人の 問題와 人間的인 것에다가 政治的인 것을 섞어 넣은 것은 다만 그의 오래된 습성—“nur die alte Gewohnheit”⁹⁾ 이라고 했다. Nietzsche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에게 거의 대부분의 예술적인 것과 사상적인것을 받았던 Th. Mann도 獨逸人에 대한 생각은 다른 의견이다. <Ecce Homo> 안에서 Nietzsche는 밝히기를 독일人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理想主義者들이며, 그가 26歲때 쯤부터 독일人에 대한 신뢰는 상실되었고, 독일人을 멸시하는 者로서 가장 으뜸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Nietzsche의 명예심에 속한 일이며, 독일人이 그에게는 아예 불가능한 存在들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이것과는 反對로 Th. Mann은 그의 論文 <Deutschland und die Deutschen>에서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그들 독일人들에게 그들의 그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惡한 것으로 변하여 惡한 者의 손에(여기서는 히트러를 의미한다) 빠져 들어갔는지는 큰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Th. Mann이 파악한 독일민족의 특성인 선하고 칭찬할 만한 그 “內向性”이 독일인의 형이상학적인 것과, 음악과, 루—터의 종교개혁과, 낭만주의로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선한 이 內向性의 우울하고 생각에 잠기기 쉬운 특성이 잘못된 길을 들어서 惡으로 빠졌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파우스트 小説속에서도 끊임없이 레버퀴인의 운명을 독일의 히트러와의 결탁과 비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명백히 구분되는 바는, 독일민족의 히트러와의 결탁은 철저히 부정적인 것, 길을 잘못 들은 최악이요 불행으로 되어있으나, 레버퀴인이 악마와 결탁하게 된 것은 人類에 공헌하는 업적, 막다른 골목에 온 文化에 돌출구를 만들기 위한, 文化를 위한 수난자, 고통을 자기 몸에 감수하고 받아들인 영웅적인 행위를 위해서 불가피한 결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點이 Th. Mann의 Nietzsche 숭배와 文化와 예술관의 산물이라 하겠다.

Th. Mann이 <파우스트 박사>小説을 쓰기위해 읽었고 또 직접 作品의 素材로 이용한 책들의 분량은 방대한 것이다. 20권이 넘는 전문적 음악이론에 대한 서적과 다른 책들은 이 論文과 관계가 없기로 생략하고, 우리 論文의 테마와 직접적이고 가장 重要的 素材들만 여기에 기재해 두기로 한다. Th. Mann이 사용한 책들을 한국에 앉아서는 다 참조해 볼 수 없던 것이 무척 아쉬움을 느낀다. 다행히도 Th. Mann 自身이 <파우스트 박사 生成記錄書>를 발간한고로 그 안에서 다음의 사용문헌들이 밝혀져 있다.

1) 聖經의 요한 묵시록, 2) W.v. Goethe의 <Faust>. 3) M. Luther의 요한 묵시록에 대한 주석, 4) J.Scheible의 <Die Sage vom Faust. Volksbücher, Volksbühne, Puppenspiele,

9) Th. Mann: Entstehung des Dr. Faustus S.101.

Höllenzwang und Zauberbücher) Stattg 1847, 5) F.M. Dostojewskij의 <Aus einem Toten> 및 <Die Bruder Karamasoff>, 6) Dante Alighievi의 <Divina Commedia>, 7) Freidank의 <Bescheidenheit=격언집>, 8) Fr. Nietzsche의 주로 <Ecce Homo> 및 <Vom Nutzen und Nachteil der Historie>.

(2)

여기에는 주로 파우스트小説의 사탄과의 對話章이라고 하는 25章과 레버퀴인 告白章이면서 告別章인 37章과 Nepomuk의 죽음의 章에서 마귀의 存在와 그의 役割에 관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Goethe가 그의 <파우스트>小説속에서 묘사한 마귀의 存在와 그 役割은 매우 추상적이고 상상의 人物로 되어있다. 파우스트가 그의 人間的理性和 知性和 學識로써 더 이상 깨달을 수 없는 한계선에 오자 그의 創造的 無限性的 熱望이, 그의 방황하며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동경과 욕망이 마귀를 불러내며, 下界의 초인간적인 힘을 빌어서 그의 人生의 굶주림과 공명심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마귀의 힘을 빌려서 파우스트는 젊음을 되찾기도 하고, 절세의 美女요 Zeus神의 딸인 Helena를 불러내어 아들을 낳게하기도 하고, 그가 하고 싶은 모든것을 누린다. 全人類에게 주어진 것을 파우스트는 자기의 內的自我가 모두 경험하고자한다. 이것은 모든 人間的인 삶의 비밀스런 源泉이 Goethe에게는 宇宙와의 자연적이고 정신적인 관계에서 노력하여 발전하는 가운데 個人의 영혼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그의 世界觀에서 나온 것이다. 파우스트小説이 Goethe의 觀念的 理想主義의 產物이듯이, 그 속에 나오는 마귀의 存在와 役割이 一般生活이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相關이 없는 관념속의 것이되어 있다.

이와 反對로 Th. Mann의 파우스트小説속에 나오는 마귀의 存在와 그 役割은 많은 부분이 靈的의요, 實體的의요, 現實的이며, 聖經的이다. 作中 話者인 짜이트브롬은 그의 카톨릭信仰自體가 觀念的의요, 非聖經的인 人間的 宗教心이니까, 具體的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能力과 現在性을 體驗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의 存在 역시 그의 靈的인 能力을 능가하는 體驗이었기에 벌벌 떨릴정도로까지 충격에 사로 잡혔다(“ein Erlebnis,.....;aber eigentlich über meine seelischen Möglichkeiten ging, so daß ich bis zum Erzitern davon herkommen wurde.”¹⁰⁾)

기록은 사실로서 부합된다. Mann 역시 신령한 次元에서 전혀 기독교 信者가 아니며, 그 自身の 主張대로 Nietzsche와 마찬가지로 無神論者이다. 그러나, 사탄이 타락하기 이전에 天上界에서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天使長으로서 하나님과 靈界를 알듯이 Nietzsche나 Th. Mann 역시 그들의 成長의 뿌리가 기독교였기에, 하나님에 대한 無知와 無關心에서의 無神

10) Th. Mann: Dr. Faustus S.389.

論者들이 아닌 聖經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데서 온 하나님의 否定이요, 約束의 말씀의 批判이요 否認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靈的인 世界에 觀心과 마음이 열려있는 측면에서는 靈的인 人間들인 것이다. Nietzsche가 얼마나 具體的으로 實際的으로 마귀의 存在를 體驗했는지는 筆者는 아직 조사 연구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다만 그의 저서 <Ecce Homo>만을 읽어 봐도 Th. Mann 小説의 主人公인 레버퀴인처럼 얼마나 쉽게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要素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그것이란 레버퀴인의 告白을 가지고도 충분히 說明이 된다. 위험을 알면서도 잘 숙고한 勇氣와 驕慢心과 뻔뻔스러움에서 世上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마귀와 계약을 맺었고 벌써 21歲로 마귀와 함께 살아왔노라고 한다.

“...nicht länger verhalten, daß ich allbereit seit meinem einundzwanzigsgsten Jahr mit dem Satan verheiratet bin und have mit Wissen der Fahr, aus wohlbedachtem Mut, Stolz und Verwegenheit, weil ich in dieser Welt einen Ruhm erlangen wollen, eine Versprechung und Bündnis mit ihm aufgerichtet.....¹¹⁾”

聖經은 두로 王을 비유로해서 天使長이었던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이된 原因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도 “完全한 印”이라고 칭하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이 그의 아름다움 때문에 驕慢해져서 총족하게 주신 智慧를 더럽혀서 그도 하나님이 되어 명성과 승배를 받기위해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던 것을 버렸던 音樂의 天使였다.¹²⁾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神을 부인하고 교만하여, 神의 섭리밖에서의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 그가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같은 욕망과 성품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쉽게받아 마귀의 종으로 惡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Th. Mann은 C.G. Jung과 S. Freud 같은 심층심리학자들의 책들을 애독했고 또 K. Kerényi 같은 회담神話研究學者的 친한 교제가 있었고, 死神 Dionisos를 그의 作品속에 많은 역할을 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靈媒가 그의 戰死한 친구를 실제로 음부에서 형상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러내어 준 體驗을 기록하고도 있다.¹³⁾ 이번 論文에서 끔찍스러운 事實을 알게 된것은 Th. Mann이 1897年 여름을 그의 兄 Heinrich와 함께 이태리의 파레스티나 市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에 바로 환상에서 그를 찾아온 악마를 직접 대화 체험했다는 것이다. 레버퀴인이 이태리에서 악마를 체험하는 그 상황은 바로 Th. Mann 自身の 體驗을 옮겨놓은 것이 된다. 그리고 Th. Mann 자신같이 그의 主人公이 악마를 육체를 가지고도 보게된 原因이 레버퀴인이 青年時에 읊아온 매독균 때문이라고 했다. 이 Motive도 Mann이 젊었을때 이태리의 사창계의 경험에서 나온것이라 한다. 이 事實을 Th. Mann 研究家인 Peter de Mendelssohn이 밝혀냈다. Mann의 처인 Katja와 매우 가까운 親分을 가졌

11) ebda S.532.

12) 성경 겔 28:12-19, 사. 14:12-15.

13) Th. Mann: Okkulte Erlebnisse In: Altes und Neues. S. 97-134.

던 Mendelssohn은 Th. Mann의 서고실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또 1953年 Roma의 호텔에서 어떤 그림을 팔려고 Mann을 찾아 왔던 화가 Gugel에게 Mann은 가져갔던 그 그림으로困해서 그의 젊었을 때 自己가 分明히 악마를 환상으로 본 경험을 말한 것을 전해들은 사실을 Mendelssohn은 자기의 Th. Mann 研究書에서 기술하고 있다.¹⁴⁾ Th. Mann의 Nietzsche 숭배와 이해와 공감은 바로 같은 경험에서 나온 것임이 分明해진다.

그래서인지 Th. Mann의 作品에는 벌써 <Tod in Venedig>에서만도 主人公 Aschenbach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4名の 人物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각기 다르면서도 분명히 死者의 役割을 하며 외모의 특징으로써 사탄의 出現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실적인 사탄이라기 보다는 神話的色彩를 띄운 디오니소스神의 모습이라 하겠다. Th. Mann의 Nietzsche 숭배와 近親性은 藝術理論과 宗教觀, 人間의 가치와 文化創造의 關係, 天才概念과 藝術家像, 倫理와 美學概念等 참으로 많은 思想을 공감하고 물려받은 바가 많다. 그러나 Th. Mann의 作品들은 Nietzsche같이 巨人的이고 풍자적 비판적이며 냉소적 교만과 독선적 과격함의 형태가 아니고, 귀족적 율리관을 옷 입고 낭만적 부드러움의 형태로서의 교만한 지성과 천재적 데카당의 모습인 것이다. <파우스트박사>에서는 사탄의 존재가 전혀 비유화도 신화화도 아닌 실체이다. 사탄이 肉眼으로 볼 수 있는 實體로서 사람에게 나타났던 事實로서 알려진 것은 M.Luther에게이다. 바로 그자가 Th. Mann의 Leverkühn에게 나타나서 文化와 藝術을 論하고 질병과 天才의 關係를 論하고 지옥과 악령의 세계를 알게 한다. 歷史上 처음으로 헬라語와 히브리語의 聖經을 獨逸語로 번역하여 모든 사람이 읽게 하는것은, 罪없는 예수의 피만이 人間靈魂의 罪惡을 씻고 구원받게 되는 福音이 진파될 수 있게 되는 일과 또 그 當時의 카톨릭이 돈으로써 면죄부를 사서 속죄받는다든 속임수으로써 속죄받으려던 사람들에게 구원을 막았던 사탄의 간계를 무찌르는 作業이었으니, 오직 사탄이 와서 루터어를 괴롭히고 放害했겠는가 짐작할 수 있는 事實이다. 그런데 바로 그자가 레버퀴인에게 나타나서 루우터가 잉크병을 자기에게 던졌다는 그 일화를 말한다.¹⁵⁾ 神學的으로 볼때는 루우터와 레버퀴인에게 나타났던 존재는 世上神으로 칭함을 받고 있는 사탄자신이 아니라, 루시퍼의 타락한 部下天軍天使들중에 함께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높은 지위에 있는 악령이었을 것이다. 聖經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人間으로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과 人間사이를 이간하는 악령들이 四種으로 나뉘워지는데 그는 政事에 속하는 악령들중에 높은자일 것이다. 政事란 악령들은 思想이나 어떤 主義나 無神論의 理論을 주입 자극하여 人間들을 하나님에게서 分離시키는 存在들이기 때문이다.¹⁶⁾ 이것에 대한 지식은 Th. Mann에게는 없었다. 레버퀴인이 그 악령을 Sammael이라고 추측해 보지만, 그 自身은 자기를 다만 옛독일의 동경적 기질과 방랑벽을 지닌 순수 독일적인 존재라고만 밝힌다.

14) Peter de Mendelssohn: Der Zauberer S. 262-95.

15) Th. Mann: Dr. Faustus S.248.

16) 성경. 엡 6:12.

그 악령이 나타났을 때 레버퀴인은 갑작스런 寒氣가 엄습해 왔고 대화중에 비록 외투와 담요를 걸치고도 악령에게서 한기 때문에 이빨을 계속 떨어야만 했다. 그 찬바람을 좀 거두워주고 말을 계속 하라니까 그는 이미 그렇게 차겨워져 버렸다는 것이다—(“Ich bin nun einmal so kalt”—¹⁷⁾ 惡靈에게서는 찬바람이 난다는 것은 事實이다.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악령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기도로써 그것을 쫓으려고 할때 느껴지는 일반적인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령들이 지금 사는 곳을 마치 성경의 유향못으로 잘못 알고 있다. 레버퀴인은 화염이 날름대는 심연이냐고 묻는가 하면, 악령은 지옥을 못견디게 뜨거운 곳과 얼어붙는 찬 곳이라 했다. 성경은 아직 지옥에 악령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 있고, 지옥은 우주진멸시에 악령들과 귀신들과 사탄을 보내는 곳이라고 가르친다.

Nietzsche의 運命은 그의 天才性이며 이 天才性이란 다른 말로 하면 질병이라고 Th. Mann은 말했다.

“sein Schicksal war sein Genie. Aber dises Genie hat noch einen anderen Namen. Er lautet: Krankheit”¹⁸⁾

醫學的 病因論이란 自然主義的인 一面에서의 한가지 眞理에 지나지 않고, 全體로서의 眞理를 사랑하고 원하는 사람은 질병발생원인을 다른 觀點에서 부정할 수가 없다고 Th. Mann은 主張한다. 그리고 이 精神的이고 文化的인 觀點의 질병이란 凡人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Nietzsche나 Dostojèwskij같은 天才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文化的 精神的 觀點의 질병은 니체체의 경우같이 梅毒病이라 한다. Th. Mann의 이 見解는 레버퀴인에게 그대로 옮겨 놓았다. 그가 21歲의 大學生으로서 창가에서 梅毒病을 옮아왔다. 그 경험이 낳은 레버퀴인의 詩, “언젠가 그대 시원한 음료를 내게 준 그 밤에, 내 삶에 그대는 독을 넣었도다. … 이 상처난 자리를 배암이 달라붙어 빨았도다…”를 인용하면서 악마는 밝히기를 그들이 놓치지 않고 레버퀴인을 주목하고 포착한 것은 바로 그의 才能을 엿보게한 이 詩句때문이라 한다. 그 정도의 자질이 갖추어진 이상 악마의 불꽃을 조금만 옮겨주면 조금만 데워주고 날개를 달아주고, 또한 취하게 만든다면 광채를 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독균이 초육체적인것, 초매독성의 것, 초전염성의 것이 되어서 연쇠막, 경뇌막, 뇌막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는 초인간적인 사탄적인 착상과 천재적 인스피레이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事實인지를 알아볼 방법은 없겠다. 그러나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들이 병균을 가져오는 것은 성경적이고, 오늘날도 예수가 하신 것 같이 귀신을 쫓으면, 그 귀신이 소유했던 질병에서 신자들이 해방을 받는다. 질병이 사탄부하의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레버퀴인에게 악마가 설

17) Th. Mann: Dr. Faustus S.244.

18) Th. Mann: Neue Studien S.109.

명하는, 악령의 도움과 질병으로써 만들어진다는 天才의 樣相의 묘사는 사실적이다. 악마와 계약을 맺고 그의 도움을 받는 시간이란 “위대한 時間, 광분하는 時間, 아주 대 소동을 일으키게 될 시간, 온전히 신들린 時間, 勿論 약간은 비참하기도 하는 時間”인데 이런 時間에 중용을 벗어난 가장 극단적인 것을 만들게 하며 질곡을 벗어난 해방과 自由를, 용이성과 권력감을 승리감과 이뤄놓은 것에 대한 엄청난 경탄을, 자기숭배의 진율과 은총입은 무퇴한, 신적인 괴물같이 자신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좋은 나쁜 자기自身을 神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짐승같은 방종을 할 수도 있고 공허와 황무지, 고통과 불쾌, 불능의 비애속으로 추락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성경적이다. 루시퍼가 사탄이 된 동기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위를 버리고 그 自身이 神이 될려고한 자기숭배욕과 명예심과 교만이였고, 인간의 타락상도 신들린듯한 자기숭배욕과 자기 자랑, 남을 무시하는 교만한 그 自我인 것이다. 이小說에서 레버퀴인의 그 특수한 曲들이 공연될 때마다 적잖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의 曲에 대한 評이란 “藝術의 조롱, 허무주의, 음악적 파괴주의, 文化的 불세비즘” 등등이다.¹⁹⁾ 그러나 그의 作曲한 것들을 話者인 자이트브롬은 경탄과 매료될 느끼면서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레버퀴인은 고갈된 音樂史에 새로운 形式과 內容을 타개한 天才라고 존경하고 따르는 무리들도 있다. Th. Mann 自身도 이 小數의 後者들에게 屬한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사탄이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악마이다. 聖經에는 사탄이 人間에게 행하는 惡行들을 따서 여러가지 명칭이 주어졌다. 지옥으로 선고받고 집행날자만 기다리는 그에게서는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存在이다. “거짓의 애비”, “처음부터 殺人한 者”²⁰⁾ “世上임금,”²¹⁾ “世上神,”²²⁾ “空中權勢잡은 者,”²³⁾ 옛뱀, 곧 魔鬼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큰 龍, 온 天下를 피는 者,²⁴⁾ “死亡權勢 잡은 者, 곧 마귀.”²⁵⁾

마귀는 하나님을 對敵하고 음부로 쫓겨내려온 存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對像이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存在로 창조된 人間은 그가 영겁의 지옥불로 들어가기 前까지 人間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못믿게 해서 그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감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마지막 발악인 것이다. 이 같은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인 사탄이 人間文化를 위해 돕는 그들의 지혜와 영감과 수단방법의 결과가 어찌 좋은 것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사탄의 文化는 人間中心文化로서 人間 위에 神도 來世도 없다는 것이다. 이 큰 모순과 비극이 Nietzsche를 비롯해서, 그에게 심취

19) Th. Mann: Dr. Faustus S.416.

20) 성경. 요. 8:44.

21) 성경. 요. 12:31.

22) 성경. 고후. 4:4.

23) 성경. 계. 12:9.

24) 성경. 히. 2:14.

25) Th. Mann: Entstehung des Dr. F. S. 53F.

하여 벗어나올 수 없었던 Th. Mann의 人間觀이며 文化藝術觀이다.

사탄이 그의 부하들인 惡靈을 시켜서 人間을 지배하는 方法은 그들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레버퀴인에게 교만한 마음을 더 하게 하며, 그가 하늘나라의 音樂家였던만큼 才能과 경험을 靈感으로 넣어준다는 얘기는 사탄의 靈的活動을 바로 아는데서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탄과의 계약의 조건이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바쁜 조건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안에 거하는 것이며, 死亡權勢잡은 사탄에게는 미움이 殺人하는 마음인고로 사랑이나 자비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귀여운 Nepomuk이 레버퀴인의 사랑때문에 뇌막염으로 죽어가는 場面에서 그는 사탄에게 저주하기를 그의 肉體는 가져갈 수 있을망정 하나님을 믿는 아기의 靈魂은 빼앗아 갈수없는 사탄의 무력함과 약점을 조소한 것이다. 이것도 聖經대로이다. 레버퀴인이 자신이 마귀와 피의계약이 맺은 것이 Sankt Thomas가 가르쳐 준것같이 Goethe의 Faust처럼 그를 불러내는 말도 必要한 것 아니고 分明한 충성의 맹세도 必要치 않으며, 다만 어떤 行動이 要할 뿐인데, 自己는 梅毒病을 가진 한마리의 독나비를 안았을때 이미 채결된 것이라 한다. 이 대목도 靈界를 아는데서 온 事實이다. 하나님과 사탄, 靈的世界와 靈界의 法을 모르는 난봉꾼이 사창가에서 화류병을 옮겨왔다고 해도 그것은 病을 옮겨온것 뿐이고, 사탄과 결탁한 것은 아니다. 靈界는 그 動機가 문제이다. 레버퀴인이 그의 才能의 한계를 깨닫고 또 神學徒로서 성경과 악령에 관한 것, Goethe와 中世民衆文學속의 사탄과의 결합에서 얻어지는 초인간적인 불꽃에 대한 지식등등이 그런 行爲를 낳게된 원동력이기에 그 動機가 비록 감싸져서 完全한 의도적인 인식으로까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靈界의 일은 콤포티보다 더욱 정확하게 작용됨을 알때, 그것은 靈的 事件이 되는 것이다. 上述한 바와 같이 Th. Mann의 <파우스트박사>속에 나오는 사탄의 存在는 너무나 實體的 存在로 나타나 있다. 觀念論的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마귀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높은 靈的次元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가, 惡靈에 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 한편 기분좋은 일이 아니라 하겠다. 또 한편으로도 이같이 惡靈의 부정적인 面을 그토록 알면서도 惡靈의 도움을 빌리고서라도 퇴색하고 막힌 文化에 탈출구를 타개하는 行爲로 Nietzsche와 같은 主人公을 만들어 내고 위대함과 경탄으로 묘사된 것은 서글픈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Th. Mann 자신도 이 小説에는 사탄이 뒷배경을 만드는 人物이 되어 있음을 지적했²⁶⁾ 또 사탄은 三重의 모습으로 등장시켰다고 말했다.²⁷⁾ 여기에 그 한가지 例만 든다면 숨은 후원자인 토울로부인이 보낸 선물인 비싼 에메랄드 반지에는 포도덩굴같은 장식화가 있는데 확대경으로 본즉 날개달린 뱀의 형상을 한 괴물이 조각된 것이다. 이 女子와의 친분을 유령적인 애인이라고 하였다. 레버퀴인은 작곡할때면 꼭 그

26) ebda S. 67.

27) Th. Mann: Dr. Faustus S. 42 of.

반지를 끼고 한다.²⁸⁾

(3)

여기서는 <파우스트박사>小說의 宗教性을 고찰하기로 한다.

Th. Mann은 Nietzsche를 無神論者라고 칭하면서 그의 無神論은 어디까지나 人間愛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니이체가 自己를 人本主義者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宗教란 일종의 경외심인데, 이것은 바로 人間이 動物들과 다른 비밀스러운 存在인 이 人間 앞에 갖는 경외심이 곧 宗教라고 했다.

“Religion ist Ehrfurcht,—die Ehrfurcht zuerst vor dem Geheimnis, das der Mensch ist”²⁹⁾

니이체가 말하는 초종파벌의 종교성이란 人間에 대한 理念과 결부된 것이며, 종교적 바탕의 人本主義로서 人間의 비밀스런것을 존경하기에 下界의 것과 惡魔의 것도 모두 알고 몰두하는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기때문에 Nietzsche는 평생동안 神學的인 사람들을 저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말한 뜻에서 Nietzsche는 가장 우수한 意味에서 神學的인 人間이라고 했다.

“Er hat sein Leben lang den »theoretischen Menschen« vermaledit, aber er selbst ist diese theoretische Mensch par excellence.”³⁰⁾

이 해석은 Th. Mann이 自己自身에게 내린 해석인 同時에 또한 <파우스트>小說의 레버퀴인에 대한 Th. Mann의 해석이기도 하다. 불란서의 잡지 <L' Arche> 속에서 Nietzsche의 無神論을 Anton von Weber가 한 宗教的 特殊形態로서 (“als eine religiöse Sonderform.”) 이해한 것을 Th. Mann은 매우 同感했다고 말하고 있다.³⁰⁾ Nietzsche의 책들을 젊어서부터 좋아하고 탐독한 것이 Th. Mann이 기독교가정에서 태어났고 기독교의 儀式을 따르면서도 本質的으로 反기독교의 사상을 소유하게 된 重要한 原因의 하나가 된 것임은 分明하다. 勿論 거기에는 平凡과 中庸을 무시하는 귀족성벽과 또 藝術家의 氣質과 높은 知性人이라는 自負心과 그의 고답적이고 교만한 性品이 Nietzsche의 思想을 숭배하면서 받아들여지게 된 바탕이 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요소이다. Nietzsche의 反기독교적 분화의 큰 업적과 그 명성이 또한 Th. Mann으로 하여금 사창가의 경험과 아울러 惡靈의 強한 영향권아래 있게 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Th. Mann은 바로 Nietzsche와 레버퀴인이 지녔던 심한 편두통과 구토증과 그런 類의 질병들을 앓았다는 것도 주목할만 하고 才能이 큰 者들에게 매독균의 두

28) Th. Mann: Neue Studien S.159.

29) ebda S.155.

30) Th. Mann: Dr. F. S.525.

뇌에 미치는 작용의 해석도 Th. Mann 自身の 경험으로 봐도 좋은 材料를 Peter de Mendelssohn의 Th. Mann 研究가 제공하고 있다. Th. Mann은 38章에서 그의 主人公의 입에 다음과의 견해를 담았다. “精神은 정신적인 요구를 들을 뿐만 아니라 感覺的인 아름다움이 지닌 動物的인 우월감에 의해서도 아주 깊이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觀念論者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터무니없이 저속한 것을 숭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Th. Mann이 말하는 다만 성서를 文字로서 理論的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觀念論的인 信者들과는 反對로 그의 宗教性이라는 것도 결코 단순한 理性과 人間性을 숭배하는 觀念論的인 것이 아닌, 하늘의 體驗은 없고 下界의 惡의 세력만을 體驗한데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짜이르브롬의 입을 통해서 宗教的인 것이란 “유혹자, 타락, 저주에 관해 취급된 作品이 宗教的인 것 외에 달리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³¹⁾라고 했다. 이같은 Th. Mann의 견해에 따르면 그의 파우스트 小説은 전적으로 宗教的인 小説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眞理를 왜곡함으로써 오히려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자 하나 성경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구원과 관계없는 기독교에 빠지게 하는 기독교의 이단종교가 역시 기독교라는 宗教의 걸음만을 걸친 종교라는 것과 꼭 같은 격이다. 레버퀴인의 作品인 <파우스트박사의 悲歎>속에 나오는 파우스트 박사의 告白인 “그는 惡하고 그리고 善한 기독교人으로서 죽는다,”³²⁾는 表現은 바로 Th. Mann이 내린 自己小説의 主人公인 레버퀴인에게 대한 해석이기도 하다. 이제 Leverkühn의 宗教心이라는 것을 그의 마지막 告白章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惡魔와의 계약期間인 24年이 다 끝나려는 그 순간의 레버퀴인의 모습은, 以前의 作品을 쓰고 발표하던 그때의 혼신의 정열과 기쁨과 만족과 자부심과 거만하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各界 各層의 自己 親知들을 自己 집에다 초대해 놓고 自己의 過去를 남김없이 告白하는 그 태도는 一種의 참회의 성격이다. 또 그가 모인 손님들에게 기독교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사용하는 兄弟姉妹라고 부르고 있다. 그가 그날까지 성취한 作品들은 마귀의 도움없이 지옥의 불꽃없이 不可能했을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가 마귀와 結탁을 하게 된 것에는 그는 일찍부터 그의 靈魂이 교만과 자만심이 강해서 그렇다는 것과, 또하나의 自己時代의 藝術이 정체되고 너무 어려워졌기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人間의 힘으로는 타개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가련한 人間들이 궁핍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실정과 藝術이 不可能한 이 時代를 너무나 잘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時代의 罪라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타개하려는 者가 악마를 손님으로 초대한다면 그런 者는 自己靈魂을 蕩亂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時代의 罪를 自己 自身の 목에다 걸머지는 者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役割을 自己가 했다는 것이다. 地上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약삭빠르게 깨닫고, 개선되도록 아름다운 作品을 만들어 다시금 삶

31) ebda S. 522.

32) ebda S. 47.

의 기반과 참된 조화를 마련해 줄 질서를 인간은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의 行爲는 정제된 藝術을 살려내어 삶의 참된 기반과 조화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된 위대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레버퀴인은 또 한편 그가 하나님에게서 자비롭게도 주어졌던 좋은 민첩한 두뇌와 재능을 가졌었는데 마음만 달리 먹었다라면 이것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겠다는 후회도 있다.

文化와 藝術이 地上의 人間 삶에 참된 조화와 기반과 질서를 가져온다는 思想이 기독교가 아니고 人間이 人間의 그 무엇으로 善해지고 人間의 努力으로 幸福해질 수도 값있게도 된다는 것은 人本主義이다. 바로 이 點이 神의 섭리를 모르며 人間의 Adam 이후의 타락성과 악마가 世上 임금으로 文化와 영화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데서 나온 오판인 것이다. 바로 이 點이 자칭 우수한 才能과 좋은 머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다. 지성인들은 自己를 자기보다 못한 凡人들과 비교함으로써 自身을 時代의 改善과 福祉化를 위한 아니 地上樂園化의 使命을 맡은 것으로 착각한다. 創造者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피조자로서의 自己 限界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知性人들의 宇宙統治者로서의 驕慢이 發生하고 창조者의 섭리를 벗어남으로 무서운 不幸을 자초하게 된다. 惡魔가 이 世上 임금이요 이 世上神으로 사람의 靈魂을 낚으려고 이 宇宙안에 있는 限, 人間 스스로의 그 어떤 努力도 임금인 그 惡魔의 힘을 이길 길이 없고, 결코 地上樂園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宇宙를 永遠히 保存하고 幸福을 주기 위한 계획이 아니고, 惡魔와 그의 部下들을 永遠한 불뭉으로 던져넣는 순간, 이 宇宙는 불바다가 되고 하나님을 찾고 그의 眞理를 받은자들은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永遠한 나라로 데려가시려는 約束이다. 여기에 知性的인 여러빛깔의 宗教人들이 보지 못하게 되는 암초가 있는 것이다. 레버퀴인의 宗教心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人本主義的인 것이다. 惡魔의 原色그대로의 作品인 戰爭이나 질병이나 파괴나 孤獨이나 좌절이나 惡한 것과는 달리, 人本主義는 知性人들과 자칭 善한 者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獨立시키고 끊어놓는 가장 교묘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한 그래서 獨善과 自滿心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惡魔의 作品인 것이다.

Th. Mann이 그러한 人間本位의 特殊한 人本主義者인 레버퀴인이 한때 그가 作曲할 수 없는 멍청한 狀態, 靈感이 전혀 오지않는 황막한 상태가 왔을때, 人間의 조화된 삶을 위해 文化를 창조하겠다는 영웅적인 존재라고 자칭하면서 큰 目的을 爲하여 自己靈魂을 영겁의 저주에게로까지 넘겨준 선한 사람이라는 그가 생각한 것이라고는 둔한 精神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새로운 전쟁이나 혁명 혹은 그같은 外的 小요를 원하기까지 되었다고 한다.³³⁾ 이것이 바로 레버퀴인의 人本主義思想의 정신이 낳은 소리이다. 自己의 精神活動의 활력 소로써 한때 사탄의 힘을 빌리던 그가 이제 人類를 파괴하는 전쟁이나 혁명, 그 어떤 파괴

33) Th. Mann: 486f

력도 사용하고 싶어함은, 그의 心靈의 本心이 어떤 파괴가 와도 自己의 창작욕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명예욕과 자부심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이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밝혀진다.

레버퀴인은 그의 친지들에게 自己의 악마와의 계약을 말하면서, 事前에 알려주는것은, 그가 죽으면 관속에서 언제나 얼굴을 땅에다 엮은자세로 누워있을 것이라한다. 설령 다섯번을 死體를 돌려 누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몸이지만, 그가 어려운 과업을 찾았고, 또 열심히 모든 것을 참으면서 뼈빠지게 일을 했다는 그 面을 하나님이 보실지도 모를 일이라 한다. 어떤者는 날 때부터 지옥자식으로 예정되었는데 自己는 그쪽에 속한다고 한다. 이런 참회의 告白을 마친후에 레버퀴인은 最後로 그의 마지막 大曲인 <그림이 있는 예언적 세계종말록> 이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을 손님들 앞에서 몇군데 연주해줄려고 한다. 그때 그는 하염없는 눈물로써 피아노 건반을 적시다가 외마디 悲歎의 소리를 발하고 누군가에게 얻어맞은듯이 땅바닥에 쓰러지고 의식을 잃는다.

여기서 레버퀴인은 分明히 그의 靈魂이 사탄에게 내리는 영접의 저주의 불가운데서 구원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Th. Mann 自身の 心情인지도 모르겠다. 그가 <파우스트 박사> 小説을 33章까지 끝마친 무렵 聖經의 요한 묵시록을 읽는데 이 대목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너는 조그만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³⁴⁾

레버퀴인의 聖經知識은 Th. Mann만큼 적다. 속죄란 사람들 앞에서의 告白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人間앞에 하는 것은 후회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받은 사람이 한사람도 마귀손아귀에 빠져 영벌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生命을 내것으로 알고 自殺하는 行爲와 알고 모르고간에 惡靈을 쫓아가지 않는 限에는 人間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피의 속죄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다. 또 날때부터 저주받도록 예정된 사람은 없다. 모두가 自己意志와 교만한 마음에서 創造主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Th. Mann의 위에 言及한 경험처럼, 하나님은 靈이신고로 그의 聖經을 읽는 者에게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心靈을 깨우고 가르쳐 주신다. 聖經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써 自己罪惡을 씻고 사함 받고자 하는 사람을 막을 어떤 형벌도 저주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37章을 Th. Mann은 人本主義思想으로써 끝을 맺고 있다. 어머니같이 레버퀴인을 돌봐준 건전한 농부출신의 하숙집 주인인 Schweigestill 부인이 악마와의 結탁으로 저주받은 몸이라는 告白때문인지 갑자기 땅에 쓰러졌기 때문인지, 아무도 그를 돌봐 일으켜 보려고도 하지 않는 주위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외친다. “많은 것을 그는 영원한 은총에 대해 말했어요. 불쌍한 사람같으니라구. 그것이 은총에 충분할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올바

34) Th. Mann: Entstehung S.134.

름이란 人間的인 理解心이죠! 제말을 믿어요, 그것은 모든것을 위해 충분해요!”³⁵⁾ 人間 앞에 영원한 은총에 관해서 말을 한다고 속죄가 있는것 아니고, 또 아무리 훌륭한 人間的 理解心이라도 속죄의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이다. 조그마한 人間的의 그 어떤 罪惡보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거룩케하는 神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것에서 속죄가 이뤄지는 것이다. 레버퀴인은 그가 말한대로 24년이 지났는데도 곧장 죽지 않았다. 정신작용이 어린아이정도의 백치가 되어서 10년을 고향집 어머니의 품에서 더 여생을 살게된다. 어머니가 데리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후에 그는 남몰래 파이프러링에 있는 클라머연못에 自殺을 기도하다가 식구들에게 들켜서 구출된다. 짜이트브롬이 레버퀴인의 이 行爲를 짐작한 해석도 전혀 기독교의 구원론과 상관없고 오히려 그 反對이다. 그의 예감에 의하면 레버퀴인이 初期의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익히 찾아볼 수 있는 신비적 구원의 이념이 그 動機였을 것임에 틀림 없다고 한다. 말하자면 악마에게서 속한 者는 어떤 경우에든지 그의 肉體를 희생시키기만 하면 그의 靈魂은 구제할 수 있다는 가정 그것이다. 기독교의 구원인양 논하고 있는 지식들이 이같이 한결같이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 어떤 인간적 종교심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法을 받아드리고 믿음으로써 얻게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주는데, 기독교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다.

이 小說속에서는 여러곳에서 레버퀴인의 영혼구원과 관련된 사건이나 표현들이 아직도 더 많고, 또 짜이트브롬의 케토릭信仰의 말들이 한결같이 기독교의 本質에서는 너무나 틀린내용이 너무나 많다. 짜이트브롬 역시 케토릭이라는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으나, 그 內容인즉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라는 것만 여기서 언급해 두기로 한다. 사탄과 계약을 맺은 줄도 알고, 교만과 방종도 알면서도 그토록 친구 레버퀴인의 惡의 꽃에 비길 수 있는 作品들을 짜이트브롬이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게된 것은 역시 그가 단순히 人本主義者이고 하나님도 사탄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관념적이며 피상적이고 잘못된 케토릭 신자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Thomas Mann의 이 방대한 <파우스트박사> 小說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대목은 34章인 레버퀴인의 누이의 아들인 天使보다 더 아름답고 信心이 깊은 아이 Nepomuk의 章이다. 人間的의 言語로서는 더 아름다운 아이를 묘사할 수 없을만한 아이같다. 여기서 Th. Mann이 단순히 Nietzsche의 정신이상의 여생을 외형으로는 따온 것이면서도 다른 面에서는 레버퀴인의 속죄의 세월을 계산시키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이와같이 Th. Mann은 그의 作品中에서 <파우스트박사> 소설같이 노골적으로 악마의 존재를 등장시킨 것이 없었다. 또 비록 그 길은 모두 어긋난 것이였지만 종교성을 띄운, 특히 은총과 구원의 문제를 Nepomuk을 통해서도 취급했다. 이 아이는 信心 또한 깊어서 잠자기前 하나님께 손모우고 밤마다 기도를 드린다. 그 기도文 中에 레버퀴인의 구원을 희망하는 소원

35) Th. Mann: Dr. F. S. 539.

이 隱喩되어 있는것이 있다.

太陽이 惡魔를 비친다
그리고 저물어간다 성결한 채로.
성결히 날 머물게해요 이 大地위에,
죽음의 罪惡 모두 갚을때까지.
아—멘.

Die Sonne scheint den Tüfel an
und scheidet reine doch hindan,
Halt du mich reinem Erdetale,
Bis daß ich Todesschuld bezahlen.
Amen.

레버퀴인을 10年間을 백치로 아이같이 되어 살게했다. 이것은 정신병자들의 일반적인 상태를 말한것인 동시에 영직차원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즉 그의 교만하고 오만했던 理性과 思辯의 才能을 몽땅 쏟아버리고 아이같이 순진하고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의 잘못살아온 삶에 위의 詩句의 내용처럼 속죄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Literaturverzeichnis

- Thomas Mann: Die Entstehung des Doktor Faustus. Amsterdam Fischer Verl. 1960.
Thomas Mann: Doktor Faustus. Das Leben des deutschen Tonsetzers Adrian Leverkühn erzählt von einen Freunde. S. Fischer 1963.
Gunilla Bergsten: Thomas Manns Doktor Faustus. Tübingen 1974.
Peter Pütz: (Hrg.) Thomas Mann und die Tradition. Frank/Mein 1971.
J.M. Lindsay: Thomas Mann. Oxford 1954.
Peter de Mendelssohn: Der Zauberer. 1975.

«Zusammenfassung»

**=Die Religiosität und das Wesen des Teufels im Roman
〈Doktor Faustus〉 Thomas Manns.=**

Im ersten Teil dieser Arbeit ist untersucht worden das Verhältnis Th. Manns zu seiner Hauptfigur des Romans. Adrian Leverkühn sei für Th. Mann die allerliebste Gestalt unter seinen allen Romanfiguren. Th. Mann versucht in der Gestalt Leverkühns einen Held unserer Zeit zu bilden, der das Leid der Epoche trägt. Der Narrator des Romans namens Zeitboldt teilt diese Empfindungen Manns für Leverkühn mit. Er verliebt gerade als Schulfreund in Leverkühn wegen seines Hochmuts und Mangels an Seele willen, seiner Lebensferne und Unmenschlichkeit willen und seines verzweifeltes Herzens, verdammt zu sein, willen. Der tiefe Grund seiner Verliebtheit in Leverkühn liegt auf dem Verhältnis Manns zu Nietzsche. Fr. Nietzsche war für Th. Mann nicht nur bloß ein Vorbild für seine Künstlertum, sondern überhaupt ein ideale Führer seines Lebens. P. Pütz vergleicht in seinem Aufsatz die Beziehung Manns auf Nietzsche mit der Beziehung der Christen auf Jesus Christus. Th. Mann heißt ihn als "ein Heiliger des Immoralismus", weil Nietzsche den Martertod am Kreuz des Gedankens gestorben sei. A. Leverkühn ist insofern eine Gestalt, in der Th. Mann die Verflechtung der Tragödie Nietzsches darstellt.

Im zweiten Teil wird besonders im Kapitel 25 und 37 des Romans das Wesen und die Rolle des Teufels durchgeforscht. Im Gegenteil des ideellen Teufelsbildes Goethes in seinem Faustroman ist das Wesen des Teufels Manns sehr realisch und die Rolle auch eingreifend. Th. Mann selber gesteht, daß in diesem Roman der Teufel sehr am Vordergrund auftritt. In vielen Werken Manns erscheint der Teufel aber verhüllt und mythisiert als das Bild des Dionisos. Jedoch im Faustusroman repräsentiert der Teufel in seiner vollen Gestalt. Erst im Jahr 1975 hat P. de Mendelssohn die unheimliche Tatsache herausgestellt, daß Th. Mann selber schon vor dem Herausgeben des Romans (Buddenbrooks) in einem Hotelzimmer in Italien den Besuch des Teufels bekommen und ein Gespräch mit ihm gehabt hatte. Sein dieses Erlebnis war der Stoff des Teufels im Faustusroman. Wie die Kenntnis vom Christentum bei Th. Mann verfälscht und vom Wesentlichen entfernt ist, so ist die Kenntnis des Teufels bei ihm partiell vom Bibel

entfernt.

Im dritten Teil ist die Religiosität dieses Romans untersucht werden. Nietzsche nennt sich als ein Atheist und aber ein Humanist. Thomas Mann verhält sich wie ein Christ, aber sein Christentum ist gar nicht christlich. Er behauptet, Religion sei "Ehrfurcht, —die Ehrfurcht zuerst von dem Geheimnis, das der Mensch ist". Für Thomas Mann ist der Mensch der Mittelpunkt seiner Interesse. Im Christentum aber steht der Mensch nicht als ein von sich existierendes Wesen. Er ist ein Geschöpf Gottes und führt sein Leben durch göttliche Fügung. Wie Nietzsche führt Leverkünn sein Leben nach seiner Hochmut und Dünkelheit. Er komponiert Werken im Pakt mit dem Teufel. Aber gegen Ende der abgeschloßenen Frist leidet er an dem ewigen Verdammnis seiner Seele. Er wünscht sich die Versöhnung mit Gott, dennoch verfährt er vollkommen vom Weg des Heils, da Th. Mann den richtigen Weg zum Gott nicht kennt. Leverkünn gesteht vor seinen Bekannten, ob Gott noch damit ihm seine Sünde vergebe, daß er die schwere Aufgabe auf sich genommen und schwer gearbeitet habe. Er weiß nicht wie Th. Mann, daß die Blumen des Teufels nie irgend Gutes für Menschen sein können. Zu dem Ergebnis gelangen wir, daß religiös zu sein im Sinne Th. Manns kein Christentum ist, wie etwa Götzendienst kein Christentum ist.